

醕酎雜學 (I)



吳 蘇 白

(韓國弘報研究所 · 代表)

● 本稿는 술에 얽힌 이야기를 씨리드로
게재할 것임. - 편집자 註 -

■ 목 차 ■

- 최초의 주세법과 사회, 정치적 배경
- 주세법 발표의 취지
- 부수(郜首)의 「酒」 낱말풀이를 옮겨본다.
- 우리나라 술과 속담
- 의화적으로 본 술
- 노예와 술
- 빅카스의 유래
- 술에 얽힌 전설

최초의 주세법과 사회 · 정치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술에 세금(간접세)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구한국 정부가 1909년(융희 3년) 2월 13일 법률 제3호로 주세법을 공포하였을 때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에는 농업이외에는 생산공업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주조(酒造)도 생업으로 이를 하는 사람은 적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 숙박업소 등에서의 부업적인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주세를 간접세로 부과할 나위가 없었다. 이에 결들여 위정자는 그들 나름대로 또한 총 조세, 수입의 6분의 5을 차지하는 지세(地稅)를 거두어 들이는 것만으로써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 삼았지 주조(酒造)를 가내공업적인 것이 아닌 생산공업으로 육성하여 이에 간접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술 제조는 일반 가정에서도 자가용(自家用)이든 판매용이든 임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임상태 하에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주세법을 공포함에 즈음한 취지문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구한국 정부가 1904년(광무 8년) 비로서 주류(酒類)에 과세하는 계획을 세운 이래 법률 제3호로 주세법을 공포하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주세법 반포에 즈음한 취지문 및 당시의 주세법 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04년 7월(광무 8년)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같은해 10월에 일본의 목하전총태랑(目賀田宗太郎)이 한국정부의 재정 고문으로 앉게 되자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주류에 과세할 계획을 세웠다.

1905(광무 9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 5조약)이 체결됐다. 이때부터 주세를 국가 재원으로 삼을 목표이래 정식으로 주류 조사에 나섰다.

1906년 통감부 설치 1907년 정미(丁未) 7조약(한일신협약)에 따라 일인(日人)의 재정고문부가 폐지되고 일인도 한국정부의 관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자 종래 재정고문부에서 관장하고 있었던 재원 조사 사무는 한국정부 탁지부(度支部)안에 신설된 임시재원조사국에 이관되었다. 주류에 대한 조사는 동국 탁지부 제2과에서 담당했다.

1909년(융희 3년) 주류조사가 끝나 이때 비로서 우리나라의 주조상황이 판명되었다.

1909년 2월 13일 주한국정부 법률 제3호로 주세법을 공포했다.

주세법 발표의 취지

이 발표의 취지는 1910년 8월, 일인 황정현태랑(荒井賢太郎)이 사내통감(寺內統監)에게 보고한 것이다.

당국(當局)의 조세는 고래(古來)로부터 답습(답습하여 왔던 것으로서 모두 오늘에 이르렀다. 조세는 직접세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간접세에 속하는 것은 없다. 그 직접세 중에 있어서도 약 6분의 5는 지세(地稅)이므로 당국의 조세액은 거의 지주(地主) 즉, 농민의 부담이라고 해도 잘못이 없다. 이같은 것은 세제(稅制) 통일상 합당한 것이 못되는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에 편중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접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것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술 및 연초는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재원을 여기서 구하는 동시에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간접세와 같은 조세는 당국에서는 창시(創始)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 실시에는 곤란이 있을 것으로 어렵된다. 또한 술 및 연초 제조자의 상태는 그 대부분이 자가용적인 초보적인 것이어서 아직 산업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많은 과세를 하면 도저히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이므로 극히 세율을 가볍게 하여 과세했다. 한편 이 사업의 개량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재원의 확보를 꾀하면서 주로 간접세의 기초를 닦고자 융희 3년 2월 주세법 및 연초세법을 발표 시행했다.

주세법에서 주류라고 하는 것은 주정(酒精)을 함유하고 있는 강약(強弱)과 이의 제조 방법의 차이에 따라 양성주(釀成酒), 증류주(蒸溜酒) 및 혼성주(混成酒)의 삼류(3類)로 나누었다. 그리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것이 판매용이건 자가용이건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면허를 주었을 때에는 증표(證票)를 교부하여 제조장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게 했다. 또한,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해에 제조할 주류 및 조석수(造石數)를 소할(所轄) 재부서에 신고하게 했다. 그리하여 주세는 주류 제조장 1개소마다 조석수에 따라 5월 및 11월이 2기로 나누어 해마다 납부하도록 하고, 전기(前記) 1류에 있어서는 세액을 가장 적게, 2류·3류는 점차 많게 했다.

부수(部首)의 「酉」 낱말풀이

- 酒黨(주당)
술꾼. 술을 매우 즐기는 사람.
- 酎(주)
세번 빛은 술 주(三重酒). 소주 주(火酒)
- 酒家(주가)
술집·술꾼·酒客.
- 酒權(주각)
政府가 술을 전매(專賣)하여 받아들이던 세금.
- 酒渴(주갈)
술에 중독되어 갈증이 나는 병.
- 酒酣(주감)

酒宴이 한창 벌어진 무렵.

- 酒戒(주계)
飲酒의 戒. <李純甫> 何會破詩, 魔光已降.
- 酒話(주고)
西經 周書의 篇名. 康叔이 殷의 故都에 封해졌을 때 인민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므로 이를 훈계한 것.
- 酒困(주곤)
酒亂.
- 酒果脯醢(주과포혜)
술과 과실과 육포와 식혜. 간략한 祭物.
- 酒狂(주광)
술취해 몹시 주장하는 사람의 별명. 酒妄.
- 酒國(주국)
술에 취해 별천지에 있는듯이 느끼는 즐거운 기분. 醉鄉.
- 酒軍(주군)
술군같이 술을 마시는 많은 한패. 군대에 비유해서 지은 말.
- 酒禁(주금)
술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국법으로 금함.
- 酒旗(주기)
술집 간판으로 내세운 깃발.
- 酒疽(주달)
술 중독때문에 소변을 못보는 따위의 병.
- 酒黨(주당).
술꾼.
- 酒壘飯囊(주대반낭)
술과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서 일은 하지않는 사람을 꾸짖어 일컫는 말.
- 酒德(주덕)
술의 공덕. 술이 취한 뒤에도 몸과 마음을 바로 가지는 버릇.
- 酒徒(주도)
술을 같이 마시는 친구. 酒朋.
- 酒毒(주독)
술의 중독으로 얼굴에 붉은 점이 생기는 증

세.

- 酒燈(주등)
선술집. 문간에 다는 종이 등불.
- 酒力(주력)
술김을 빌어서 나는 힘.
- 酒帘(주렴)
酒旗와 같은 뜻.
- 酒獵(주렵)
술을 올거먹기 위해 아는 사람을 찾아 다님. 獵酒.
- 酒令(주령)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여러가지 유희의 규칙. 이에 어긋나는 사람은 罰酒를 마셔야 한다. 후한(後韓)<賓退錄>
- 酒令杯(주령배)
속에 오뎅이 같은 인형이 들어 있는 야릇하게 된 술잔의 한 가지.
- 酒醴(주례)
술과 甘酒.
- 酒壚(주로)
선술집에 술잔을 벌려 놓는 상(床).
- 酒醪(주료)
청주와 탁주.
- 酒樓(주루)
술을 파는 요릿집.
- 酒幕(주막)
시골의 길목에서 술과 밥을 팔거나 나그네를 재우는 집.
- 酒媒(주매)
누룩.
- 酒母(주모)
술집 안주인. 술을 파는 여자.
- 酒粕(주박)
술지게미.
- 酒房(주방)
李朝때 술을 맡은 內侍部의 한 分掌.
- 酒癖(주벽)

- 술 버릇.
- 酒甫(주포)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 酒保(주보)
술을 파는 사람. 군대의 영내에서 음식이나 그밖의 일용품을 파는 곳.
 - 酒不雙杯(주불쌍배)
술을 마실때 잔의 수효가 짝수가 됨을 피하는 일.
 - 酒邪(주사)
술을 마신뒤의 나쁜 버릇.
 - 酒肆青樓(주사청루)
술집과 기생집.
 - 酒色(주색)
술과 여색(女色).
 - 酒色雜技(주색잡기)
술·여색등 여러가지 놀음.
 - 酒石(주석)
포도주를 만들때 알콜이 증가함에 따라 침전하여 생기는 물질.
 - 酒石英(주석영)
신맛이 있는 흰 빛갈의 결정체. 염료·약용을 쓴다.
 - 酒仙(주선)
세상 일을 마음에 두지않고 술로서 즐거움을 삼는 사람.
 - 酒聖(주성)
맑은 술. 청주. 술을 잘 마시는 사람. 酒豪.
 - 酒贖(주속)
금주를 어긴 사람이 무는 벌금.
 - 酒水瓶(주수병)
술병과 물병. 천주교의 미사祭具의 한 가지. 포도주와 물을 담음.
 - 酒水相半(주수상반)
약을 다릴 때 술과 물을 똑같이 탐.
 - 酒濕(주습)
술 중독으로 얼굴신경이 마비되고 또는 반신 불수가 되는 병.
 - 酒案床(주안상)
술과 안주를 차린 상.
 - 酒甕(주옹)
술독.
 - 酒蟻(주의)
술구더기.
 - 酒場(주장)
술자리.
 - 酒錢(주전)
술을 살 돈.
 - 酒正(주정)
벼슬이름. 周禮 天官에 다린 酒官의 長.
 - 酒亭子(주정자)
자백계에서 계돈을 탈 때 술값을 떼어 놓는 돈. 나라의 경사나 잔치때 술그릇을 벌려 놓던 상.
 - 酒樽(주준)
술통. 술독.
 - 酒債(주채)
술값으로 진 빚.
 - 酒패(주패)
酒旗와 같음.
 - 酒瓢(주표)
술을 넣는 호로병.
 - 酒盒(주합)
쇠붙이로 만든 술그릇. 술과 안주를 담아 들고 다니게 된 찬합.
 - 酒缸(주항)
술 항아리.
 - 酒壺(주호)
술병.
 - 酒肴(주효)
술과 안주.
 - 酒訓(주훈)
술을 경계토록 가르친 말.
 - 酒泉(주천)

술이 솟는 샘.

● 母酒(모주)

약주를 뜨고 난 찌끼 술, 밀술, 지독한 술꾼.

● 謀酒(모주)

술 마시기를 꾀한다.

● 耳明酒(귀밝이 술)

음력 정월 보름날 아침에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 명이주(明耳酒), 이명주(耳明酒), 청이주(聽耳酒), 치릉주(治聽酒).

우리나라 술의 속담을 옮겨본다.

속담은 민중의 소박한 슬기가 담겨 있다.

△ 모주(母酒)장사 열 바가지 두르 듯
얼마되지 않으나 하나하나 걸어로만 많은 체
한다는 뜻.

△ 술 값보다 안주 값이 비싸다.

어떤 일에 있어서 주(主)되는 것보다 그에
달린것이 더 많음을 이르는 말.

△ 술과 안주를 보면 맹세도 잇는다.

술 즐기는 사람은 늘 술이 몸에 해롭다 하여
끊으려고 하나 보기만 하면 안 먹고 못 견딘다
는 뜻.

△ 술 담배 참아 소 샀더니 호랑이가 물어
갔다.

돈은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쓸데는 써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

△ 술 덤병 물 덤병

모든 일에 무턱대고 경거망동함을 이름.

△ 술 먹여 놓고 해장 가자 부른다.

일을 못 되게 망쳐 놓고서 그 뒤에 도와주는
체한다는 뜻.

△ 술 먹은 개

술이 취한 사람을 멸시하는 말.

△ 술 받아주고 뺨 맞는다.

자기 돈을 써 가면서 남을 대접하고 나서
자기가 도리어 욕을 보는 경우에 이르는 말

△ 술 샘 나는 주전자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허망한 일을 바랄
때 이르는 말

△ 술은 필 때 걸러야 한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나 최적(最適)의 기회
가 있는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때를
타서 해야만 된다는 뜻

△ 술은 초물에 취하고 사람은 훗물에 취한다
술은 처음 마실때 부터 취하기 시작하나 사람
은 한참 사귀고 나서야 그 사람의 장점도 발견
할 수 있고 하여 좋게 지낸다는 뜻.

△ 술이 아무리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무엇이나 실지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

△ 술 익자 체 장수 간다

일이 우연히 잘 맞아 감의 비유.

의학적으로 본 술

(1)

술을 마시면서 술에 완전히 취하지 않기 위하
서는 처음 한 시간에 위스키면 더블로(W) 두
석 잔을, 맥주면 두 세병을 마셔서 핏속의 알콜
을 50~60 그램이 되게 하여 농도를 0.1% 정도
로 유지하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상쾌하다.
그 뒤 부터는 한 시간에 핏속 알콜이 약 10그램
산화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스키면 한 시간에
보통 한 잔(알콜 13그램)을 비율 정도로 천천히
마시면 완전히 취하지 않고 애주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취하지 않고 애주하는 과학적
비결이다.

다음은 나의 애주신조(愛酒信條)다.

- ① 여러가지 술을 혼음하지 않는다.
- ② 기름 진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
- ③ 영양부족과 간(肝)의 장애를 경계한다.
- ④ 반주의 양을 많이 하지 않는다.
- ⑤ 상표를 모를 술은 마시지 않는다.

⑥ 적은 수의 주봉(酒朋)과 특정한 목적없이 술을 마신다.

⑦ 나의 처지를 잊지않고 술을 마신다.

⑧ 음주의 속도를 늦추어서 취하지 않도록 마신다.

⑨ 첫 잔을 제외하고는 술잔 주고 받기를 안한다.

⑩ 술을 마신 뒤는 몸을 차게 하지않고 또 격동을 피한다.

(醫人合同 수필집에서 : 醫博 李熙永)

(2)

알콜도 양을 적게 마시면 빈혈이나 현기증에 약이 되고, 달걀술 같은 건 감기에 묘약 된다. 하지만 양이 지나쳐 주정을 부리게 되면 아무런 이익도 없다.

알콜분이 혈액속에 0.3% 이상 들어가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서, 손발의 자유도 듣지 않게 된다. 이런 마비상태를 즐긴다면, 필로폰 중독자와 같은 심리일 거다. 알콜로부터 받는 마비상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양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해독을 받고 있다는 건 틀림없다.

술의 해독에 대해 백만번 더들어대도, 술꾼에겐 통하지 않을거다. 제발 취해서 남에게 괴롭이 나마 주지 않았으면 한다. 「주정뱅이 천국」이란 따위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다. 세상 최악의 거의는, 알콜분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거다.

알콜분 때문에 생기는 병은, 심장병·간장병·고혈압·뇌일혈·중풍·위궤양 등,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장은, 알콜분을 흡수하는 곳이기도 한다. 술을 즐기는 의사가 술의 해독을 되도록 못본체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알콜의 매력은, 법률로 금해도 소용없다는 건 미국의 예로도 알 수 있다. 결국 금주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

다. 만취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자기의 몸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라도 하랄 수 밖에 없다.

(3)

술도 담배도 스피이드로 마시는 건 금해야 한다. 만취하고 싶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셔버리면 된다.

술이 세다던가, 약하다던가 하는것도 그 양과 마시는 시간의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긴 시간을 두고 마시면 1되쯤은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면 몸엔 좋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알콜에 관한 인체실험의 여러가지 표로도 알 수 있듯이, 긴 시간이 흐르면 알콜분을 소변으로 배설시켜 버릴수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엔 알콜분이 혈액속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진다. 알콜분이 혈액속에서 깨끗이 자취를 감추는 건, 보통 술을 마신 뒤 12시간쯤 돼야한다. 그러나 취기가 오는건 1시간도 안걸린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알콜분이 몸에 들어온다면 주정하게 마련이다.

담배도 똑같다. 빨리 담배를 피워버리면, 알콜분과 같이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가는 양도 많아진다. 대개 담배의 니코틴은, 담배 자체에 포함된 양을 문제삼기보다도 연기속에 든 양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스피이드로 빨아들이면, 몸에 좋지 않을 것도 당연하다. 담배도 콩초일수록 니코틴의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콩초가 될때 까지 빨아들이는 것도 나쁘다.

되도록 惡醉·昨醉未醒같은 무지막지한 음주는 삼가야 한다.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건 늘 머리에 두어야 한다.

알콜이 분해할 때엔 비타민 B(1), B(6), B(12), A, D 등이 작용하는게 필요조건인데, 이런 건 쇠고기·새 고기·간·고양이고기 등에 많이

섞여 있다. 술을 마실때는 되도록 이와같이 여러 가지 안주를 먹는게 상책이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 알콜은 비교적 빨리 분해되고, 간장도 다칠 염려가 없다.

흔히 술을 마실때 간장을 보호하는 신약을 먹는데, 이에는 이론을 내세우는 학자도 있다.

알콜이 몸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몸속에서 자연 지방이 간장에 모여든다. 거기엔 뭔가 그만한 까닭이 없어선 안된다. 그걸 부자연한 방법(약)으로 없애버린다는 건, 특별한 경우 외엔 오히려 해독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다.

알콜이 늘 간장에 붙어있으면, 간장에 남은 지방이 정착해서 굳어진다. 그걸 간장硬變症이라고 한다.

하나 더 주의할게 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소오다(重曹)를 0.5그램쯤 먹어두면 惡醉안한다. 이건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해두면 한결,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오다는 연거퍼 먹지만 않는다면 해독이 없는건 확실하다.

(4)

지나치게 마시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시는게 술의 버릇이다.

기분으로 마시는 술이니까, 유쾌하다고 지나치게 마셔버린다. 또 약간 마시면 재미없다고 지나치게 마셔버린다. 거기다 술이 취해지면 통이 커져서 자제심을 잃고 지나치게 마셔버린다.

이를 취하는 걸 작취미성이라고 한다. 이건 지나치게 마셔 배설못한 알콜분이, 온몸의 세포와 결합한 꼴인데, 그 자극 때문에 급성 위카타르를 일으켜, 혈액중에 수분이 모자라게 된다. 또 혈관의 운동조정이 깨져서 편두통이 일어난다. 이것도 일종의 병이다.

그러므로 작취미성일 때는, 급성 위카타르의 요법을 취할 것, 물이나 보리차 등 그다지 자극이, 심하지않는 유동물(流動物)을 취할 것, 너무

잠만 자지말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다. 요컨대 몸속에 남아있는 알콜을 빨리 소변으로 배설해 버려야 한다.

작취미성이면 흔히 아침부터 해장술을 또 마신다. 이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 작취미성의 되풀이 밖에 안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위카타르가 더 나빠진다. 겨우 분리하기 시작한 알콜분은 그냥 처음과 같이 세포와 결합해 버린다. 언젠가는 그게 분리할 때 일어날 불유쾌한 기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

(5)

크게 취한다는 건 생리적으로는 어떤걸까. 알콜은 보통 사람의 몸 속에선 1시간에 60%전 후정도밖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연거퍼 술을 마시면 분해안되는 알콜 분량이 점점 혈액속에 불어나게 된다. 체질 또는 그때마다의 기분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혈액중에 50 밀리그램의 알콜이 들어가면 얼굴에 나타나고 기분에도 가벼운 변화가 나타난다. 100 밀리그램을 넘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빨개진다. (사람에 따라 파랑게도 된다) 마음의 억압이 없어지고 자연 기분이 유쾌해 진다. 말도 많아지고 명랑해진다. 200 밀리그램이 넘으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혀가 굳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진다. 자제심은 없어지고 여러가지 추태를 부리거나 난폭해진다.

이건 혈액중에 갑자기 불어 난 알콜분때문에 간뇌(間腦)나 연수(延髓)가 약한 사람은 제일 먼저 거길 다치기 때문이다. 간뇌는 감정을 조정하는 중추(中樞)이며, 연수는, 호흡, 심장, 소리를 내는 근육의 운동을 하는 중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정은, 마음 가짐과도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소부터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취했다해도 추태를 부리거나, 난폭한 짓을 하는 일은 결코

없다.

(6)

술·담배 모두 몸에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또 누구나 술·담배를 끊으려고 한 두 번쯤 실행에 옮겨 보기도 했을 거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술·담배를 끊지 않으면 생명에 관계된다는 경고를 받고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 하지만 알콜중독이며 니코틴중독이 되어 있는 환자는 술과 담배에 목숨을 빼앗길 때까지 별 수 없다.

담배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안주지만, 술은 다르다. 술에 취하면 가족을 울리고, 남에게 괴롭을 준다. 알콜로해서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건 당사자가 알고 하는 일이므로 별 문제없겠지만, 남에게 괴롭을 준다는 건 백번 생각해야 할 문제다.

담배를 끊게하는 약, 술을 끊게 하는 약이 여러가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결심에 달렸다. 본인이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아무소용도 없다. 끊을 결심만 돼 있다면 술·담배도 못 끊을 까닭이 없다. 물론 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술·담배를 끊는 요령을 적은 어떤 책을 읽어도 결국 본인의 의지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 있다.

노예와 술

옛날의 스파르타인들은 노예들에게 많은 술을 먹여 연회장에 끌고 들어와서 청년들에게 구경시켰다.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박카스의 유래

술은 박카스(Bacchus)의 선물, 또는 그대로

박카스라고도 한다. 박카스는, 후대의 명칭이고 정식으로는 디오니소스(Dionysos). 이 디오니소스는 그리이스의 신(神) 제우스 대신, 아폴로 신에 못지않게 유명하지만 보통 올림퍼스 12 신에는 들지 못한다.

디오니소스는 임신 6개월에 어머니 세멜레가 죽자 제우스 대신의 허벅다리에 저다을 채워 세상 빛을 보았는데 요정들의 정성이란 양육과 뮤즈들, 사튀로스들, 늙은 실레노스들의 교육을 받으며, 트라키아 지방의 뉘사산에서 자라났다.

디오니소스는 이 뉘라산에서 들과 숲을 뛰어 돌아다니다가 포도를 발견하고 포도주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디오니소스가 뉘사산의 수업을 마치고 그리스로 돌아왔는데 아타카주 이카리오스란 사람이 그를 환대 했다. 그는 선물로 포도나무를 주고 포도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카리오스는 이 신기한 포도주를 근처의 목동들에게 한 잔씩 권하였더니 달콤한 맛에 마시고는 취하여 눈 앞이 아찔아찔한지라 독을 타먹인줄 알고 당장에 이카리오스를 죽이고 말았다.

이카리오스는 말하자면 술의 첫 순교자라고나 할까. 그리이스의 아티카주에서는 「디오니소스 小祭」 혹은 「마을」이라 하여 12월에는 신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포도주제」와 2월 말경에는 지난 해에 담근 술을 처음 맛보는 꽃놀이 축제가 있어 사흘 동안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기는 행사가 있었다.

3월초에는 「디오니소스 대제」라 하여 음악 경연, 연극 상연 따위 다채로운 행사가 5일간 계속되는 대축제가 있었다. 그리스 고전 중의 고전인 그리스 극이 발달하고 극시인이 배출된 것은 실로 이 축제때문이다.

술에 얽힌 전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이미 「노아」의 시대

에 술이 있었다. 「아담」의 10대째 자손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다. 이 홍수는 전세계를 삼켜버렸다. 「노아」는 네모진 큰 배(약 1만 5천톤)를 만들어 자기의 가족과 동식물의 원종(原種)을 싣고, 아라랏트 산에 다달았다. 이로부터 지상의 생물이 재출발한 걸로 돼있다. 「노아」의 방주속엔 포도의 씨앗이 있었다. 신이 「노아」에게 포도가꾸기와 포도주 담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다. 유대인의 탈무드 전설을 보면—「노아」가 포도재배를 할 때에 악마가 와서 도와준다고 꼬여, 첫째 양 다음은 사자 그리고 돼지 원숭이를 죽여 그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 주었다.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양같이 순하다. 적당히 마시면 사자와같이 강해진다. 지나치게 마시면 돼지같이 된다. 완전히 취하면 원숭이 짓을 한다.

그리스도도 가나의 혼례에 스스로 술을 빚어 권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는, 포도주를 자기의 피라고 하며 일곱명의 제자에게 준것으로 되어 있다.

서기 전 2250년께 비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조 때도 금주법이 있었다. 앗시리아의 한 파묻혔던 도시에서 파낸 벽에서 맥주 만드는 법이 기록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걸 3000년전의 일이다.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Osiris)신이 보리로 술을 만들었다. 또 원숭이가 자연발효 작용으로 된 술을 마시고 취했다. 잡으로 갔던 사냥군이 역시 그 술을 마시고 취했다. 술에서 깨어난 원숭이가 사냥군의 얼굴을 핥아줬다.(전설)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바커스(Bacchus)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아주머니의 여신한테 포도가꾸기와 포도주 빚는 법을 배운걸로 돼 있다.

여하튼 포도주는 지중해 변두리 지방에서 생겼다고, 그리스 로마로 번졌다. 포도가꾸기와 함께 포도주는 처음엔 따뜻한 지방에서부터, 다시 추운 독일 헝가리 등으로 번져갔다. 영국에서는 포도주를 못만든 대신 펍 오래전부

터 수입했다.

발칸반도의 전설—고대의 유목민이 어디서 포도순을 발견, 처음은 새의 목구멍, 다음은 사자, 나중엔 노새의 두개골에다 심어서 자라게 했다. 익은 포도를 따서 자연발효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 조금씩 마시면 새같이 노래하고,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아주 많이 마시면 노새의 머리와 같이 바보가 된다.

맥주의 발상은, 이집트로 알려졌다. 이집트의 신화에선 오실리스의 신이 이를 가르쳤다는 거다. 이집트의 피라밋에서 나온 부장품(副葬品)엔, 술병을 들고 있는 여자의 입상(入像)이 있다. 아마도 이는 맥주를 왕에게 바치는 모습으로 보인다.

중부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맥주와 양조업의 수호신으로 감브리누스(Gambrinus)를 모신다. 감브리누스는 카알(Karol)대왕때 브라반드(Buraband)에서 살았던 왕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또는 그를 1251년에 태어난 부르군드(Burgund)의 후작 또는 공작이었을 거라고 보는 이도 있다.

16세기 이후 감브리누스는 「맥주의 왕」 또는 맥주를 발명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다. 그림에는 로마시대의 기사 옷차림을 했다. 머리에 이삭으로 만든 왕관같은 걸 쓰고 손에는 화려한 투구(鬪具)를 든 모습이다. 배경은 일꾼들이 추수하는 광경이며 맥주통이 그려져 있다.

역사적 고증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4,000년경에 수메르(Sumer)민족이 최초로 맥주를 만들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다. 티그리스(Tigris)와 유프라테스(Euphrates)강 유역의 수메르민족이 인류최초의 문화를 발달시켰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문명의 바탕이 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메르민족의 문화는 기원전 4000년경 그 절정에 이르렀던 거다.

수메르 사람들은 땅을 창조한 신에게 곡식을 바쳤다. 승려들은 신의 이름을 빌려서 공물을

바치게 했고, 서로 분배할 뿐 아니라 승원(僧院)의 접객업이 한창이었다. 고승으로서 수메르의 전성기 것으로 짐작되는 토판(土版)에 술병과 술잔이 그려져있다. 이때 이미 술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A.D. 1935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판비(板碑)의 문자를 풀면, 기원전 4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이미 발효를 이용, 빵을 구었다. 그 빵을 가지고 보리의 싹을 당화(糖化), 물을 섞어 맥주를 만든 사실을 알게 됐다. 수메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루블 박물관에 있는 <Monument bear>이다. 방아를 찧고 맥주를 빚어 니나(Nina) 여신에게 바치는 모양을 볼 수 있다.

이집트에서의 맥주제조의 관한 유물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많이 발견됐다.

포도재배가 잘 안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같은데서는 할 수 없이 곡주-이를테면 맥주를 만든 걸로 보인다.

위스키와 브랜디같은 증류주는 더운 지방에서 발명되었다. 아마도, 이란이나 아라비이 같은 곳이 발상지일 거다. 영국서는 6세기의 옛노래에, 「굴술」에서 뽑아낸 소주이야기가 나온다.

리큐르(類)는 유럽의 사원에서 만든 강장약주

(強壯藥酒)가 그 시초인데, 프랑스가 본 고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홀랜드에서 판을 치고 있다.

유주(乳酒)는 발칸반도로부터 코카서스 지방에서 적지않게 보였다. 물론 유주도 이 지방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왔으나, 술맛이 그다지 좋지않기 때문에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인도에서는 태고적부터 감로주(甘露酒)가 있었다. 인도의 이리야 사람들은 소오마 나무로 만든 술을 제사때 없지못할 거룩한 제물로 사용했다. 석가시대엔 금주계(禁酒戒)가 생겼고, 술을 마신 사람은 뜨거운 납물을 마시게 했다. 또 이마에 화인(火印)까지 찍어 주었다.

중국에선 4850년전에 의적(儀狄)이라는 사람이 처음 공고를 만들었다. 그는 처음 만든 술을 우왕(禹王)에게 올렸다. 술을 한모금 마신 왕은 입을 열었다.

「맛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후세에 반드시 나라를 망칠 자가 있을 거다.」

의적(儀狄)은 술을 만든 까닭에 멀리 유배됐다. 중국에서 「酒」라는 글자를 만든건 4,000년전이다. 처음에 「𩚑」이 없이 그냥 「酉」였다. 이를테면 향하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뒤에 「酉」는 「𩚑」을 붙여 「酒」가 됐다.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